

# 성도의 빛 12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2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 성도의 벗

1988년 12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루, 윌리엄 알 브라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70권, 제25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88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정 기 만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12KO

PRINTED IN KOREA 12/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2 성탄절 인사.....대관장단

대관장단 메시지 :

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됨.....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

방문 교육 메시지 :

7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9 예언자의 개성.....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12 내가 어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안젤 엠 보노안

14 “기록은 참되며”

교리와 성약 소개

18 매우 중요한 주제.....존 더블류 웰치

23 세 개의 작은 동전.....리차드 에이 림

25 프레디.....다이란 홀메스 테스페인

28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몰몬경의 성탄절 이야기

33 주님의 등불.....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38 몰몬경 탐구

### 청소년란 :

43 안데스에 갇히어.....로돌포 델 시 아세이베이도 에이

47 한밤중의 부드러운 휘파람.....린 피네가

49 사랑의 상징.....질 스테이커

### 어린이란 :

2 기쁜 성탄.....버너딘 비티에

5 성취된 예언

6 영웅과 여걸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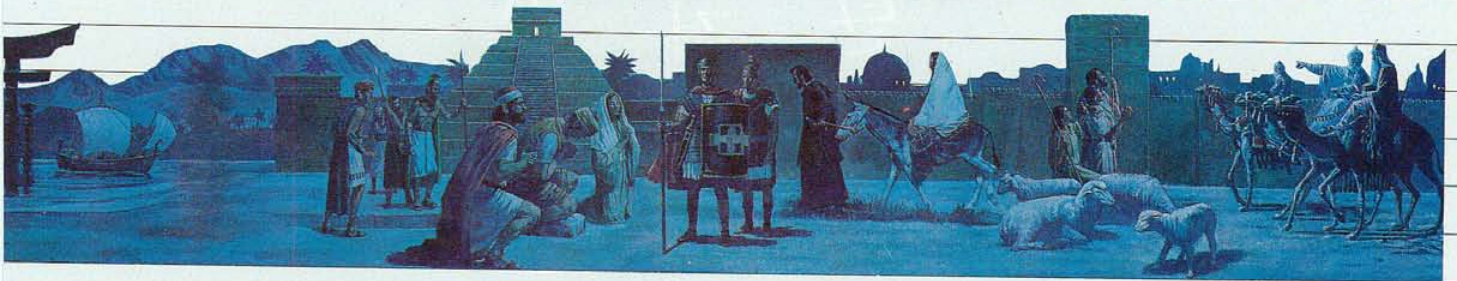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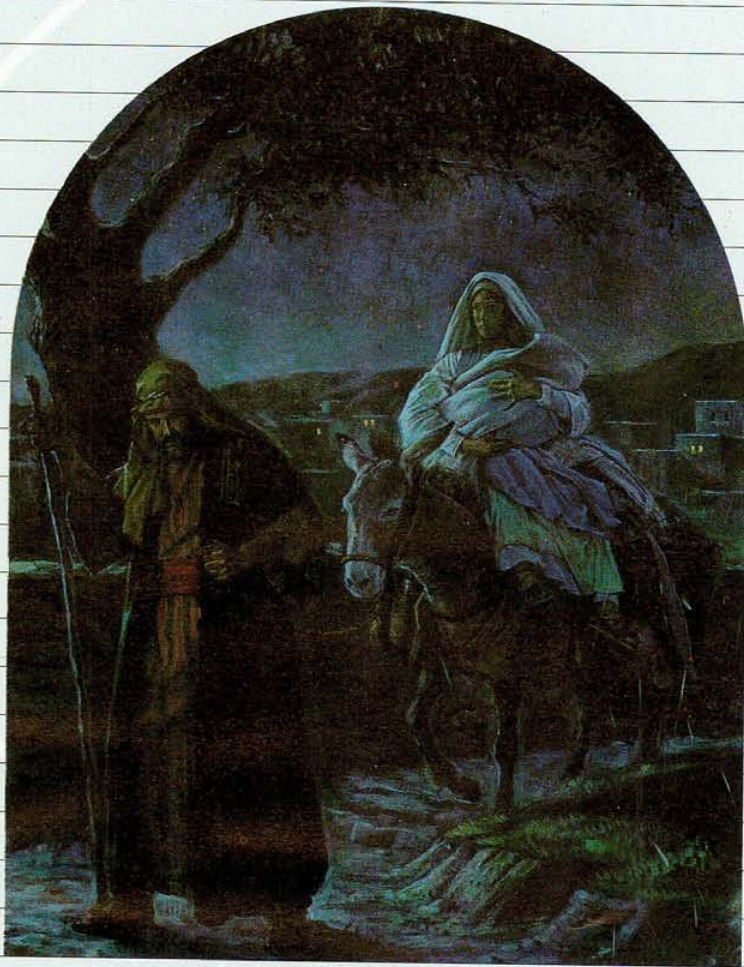
하이람과 같은 형제.....쉐론 비젤로우

8 점선 잇기.....케이 스티븐슨

하늘의 교사











# 성탄절인사

대관장단

우리는 모든 기독교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이 훌륭한 성탄절을 여러분과 나누어 기뻐합니다.

대관사 이사야는 수세기 앞을 내다 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그가 탄생하시고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입니다”(베드로후서 1:16)

일세기 반 전에 위대의 증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한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들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이 애도하기를 간증드립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생이 선물로 주어 보라 나의 자비의 광이 너희에게로 뻗자서 있어 내게 오는 자들 내가 영접하여, 내게로 나의 자비를 축복하리로다.”(니코이삼서 9:14)

이 영광스러운 절기에 우리는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구세주와 그가 가르치신 교훈에 대한 사랑을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바치도록 권유하기를 바칩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됨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성** 탄절은 참으로 기쁜 절기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가졌던 기쁜 성탄절의 전통을 기억합니다. 훌륭하신 부모님과 그들의 열한 명의 자녀가 가졌던 성탄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모릅니다.

내가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되었을 때 아내 플로라와 아이들은 들딸기 나무와 소나무 가지로 집을 장식하고 맛있는 케익과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가득한 듯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성탄절기를 경축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의 전통 이상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사가 구세주의 탄생과 사명의 신성함에 대한 여러분의 깊고 확고한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화평스러운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더욱 결의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나는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경축하는 탄생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 또한 우리의 주님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삼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 나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와 종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가 살아 계심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물론 우리가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그의 신성함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오직 역사적인 전통에만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방문하신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때 그는 보고 들었으며 그후에도 그는 이 경륜의 시대의 다른 경우에 여러번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한 영화로운 나타나심에 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들어 봅시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저는 곧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 : 22~23)

우리는 그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현대의 증인들입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가져 오셨음

우리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 나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누가복음 1 : 35)

우리는 육신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고 또한 선포하니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름발을 건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며 회개하는 조건으로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본 바와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이사야



53:4-5)음을 받고  
선포합니다.

우리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는 우리가  
회개하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었도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마쳤느니라.”(교성  
19:16~19)

그는 하나님이시요 부활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 계십니다. 그가 살아 계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도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살잘못에 관계없이 인류에게 거저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 우리는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함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오직  
선행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다거나  
교회 의식을 준행했다는 사실로 구원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구원이란 궁극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나아가게 됨을 뜻합니다. 구원이란  
모든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에게만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께서 순수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순수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모세서 7:35)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그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의식에 따를  
때에만 순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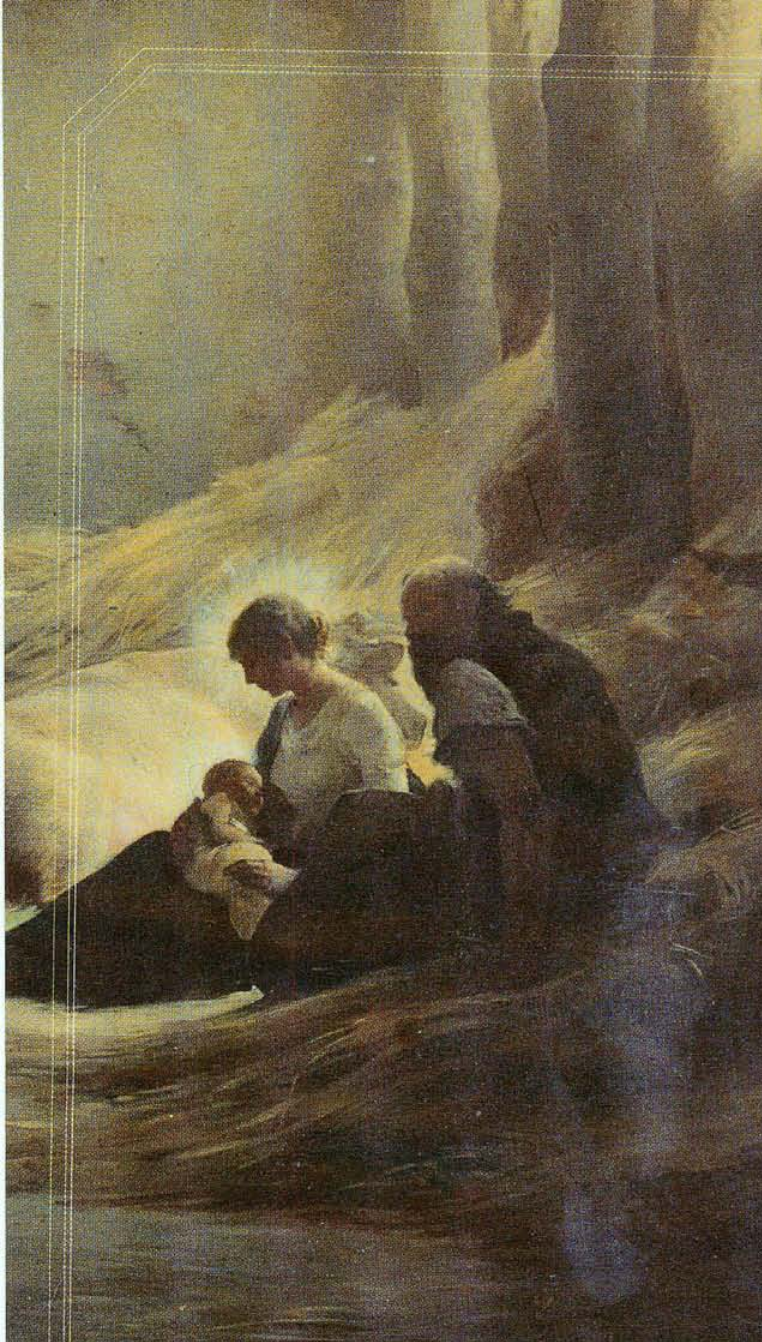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악을  
버려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례 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경전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면전으로 나아가는 데 합당하게  
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

교회로서 우리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파이이서 25 : 23)

자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율법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비로써 구세주께서는 온 인류가 불사불멸을 얻도록 속죄의 희생을 치루셨습니다.

그의 자비와 속죄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죄에 대한 회개로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의 자비로써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될 영적인 힘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니파이이서 25 : 23)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벼은 자를 입히고 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찾아가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것”(모사이아서 4 : 16)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에게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모든 거래에 정직하며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하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을 본대로 행하라.”(니파이삼서 18 : 2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힘차고 강하게 만듭시다.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같게 하여 근면함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자신의 성품에다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목적은 “신의 성품”을 얻는 것입니다.





엘마가 권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몸에 지니”(엘마서 5 : 19)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기를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하며 그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한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모사이야서 3 : 17)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그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제자임을 보고 알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성탄절의 경축은 구세주의 탄생과 사명의 신성함에 대한 우리의 깊고 확고한 간증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가 요셉 스미스에게 방문하신 것은 구세주의 부활 이후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3. 구원은 모든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4.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다만 하나님의 차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니파이이서 25 : 23)에 관한 벤슨 대관장의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구세주의 성품을 닮는 것에 관한 벤슨 대관장의 권고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가?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목적 :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키우고 나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세상이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영원한 성장과 다른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2페이지)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구세주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따라서 그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 상호부조회의 모토이다.

여성이 사랑을 키우고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 조직된 상호부조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한 봉사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사랑을 키우도록 도움을 준다. 그것은 마치 한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비극을 당한 한 젊은 어머니를 도와 주었을 때 사랑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엘리자벳이 수술을 받게 된 것은 30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실수로 신경이 절단되어 평생토록 불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알콜 중독자였으며 곧 아내와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버렸다.

엘리자벳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리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도움으로 자녀를 기르느라 애를 썼다. 이들은 모두 그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놀랍게도 엘리자벳을 도와 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떠날 때면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곤 한다.

우리는 모두 봉사를 하거나 봉사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두 가지 다 우리의 구원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봉사하고 봉사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키우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 같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후에 남편과 자녀, 동료 또는 이웃에게는 거칠게 대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안합니다”하고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사람을 포용할 시간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봉사란 대개 편리하거나 행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사랑을 키우려는 노력에는 구세주의 모범이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경전은 그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파악했으며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고 축복했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에게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우리가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며 “그의 양을 먹이”겠다는 약속을 했다.(모사이야서 18:8~10; 요한복음 21:17; 교성 112:14 참조) 봉사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인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자한 선행을 나타내 보이고 사랑에 찬 봉사를 할 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를 받아들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널리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송고하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생활에서 가치있게 됩니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보여진 사랑의 예를 토론한다.
2.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가정의 밤 자료집 48~51, 98~101, 106~108, 156~160페이지를 관련 자료로 참조한다.)



조심스럽게 열고 마부석에 올라 앉아 고삐를 제대로 잡아 말을 정지시켜 승객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이 사건은 지방 신문에 게재된 감사의 편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언자의 생애에서 참된 모험은 정신과 영의 승리였다. 소년으로서 그는 호기심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문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마을 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후에 그는 어떻게 여러 종교 지도자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교리를 깊이 생각했었는지를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소년으로서 어떤 주제에 대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운 것을 깊이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나중에 말씀한 내용들은 경전과 그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언자는 우리에게 모범이었다. 그는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읽은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요셉은 여러 종교에 부분적인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질문하면 답변은 결국 성신과 시현과 특별한 사자에 의해 왔다. 요셉을 위대한 예언자로 만든 것중 한 가지는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성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이며 요셉은 그의 생애 초기에 기도의 힘을 발견했다. 그가 해답을 구하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도 20대였다. 그는 우선 목사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영이 결핍되어 있는 분리된 기독교계 사이의 모순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내 영혼에 슬픈 일이었다.” 빠른 해답을 얻는 것과는 달리 그는 “열 두 살부터 열 다섯 살까지” 경전을 생각하고 탐구했다. 첫번째 시현에 관한 자세한 설명에서 요셉은 그가 어떻게 “주님께 자비를 간구했는가”를 강조했다. 그는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구세주께서 그 당시 지상에는 그의 교회가 없었다고 하신 대답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응답은 열심히



탐구함으로써 왔다.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기도를 드렸다.

요셉의 생애는 그가 겸손하고 간구하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마태복음 7:7)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댓가를 지불했다.

요셉과 친근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느꼈다. 로렌조 스노우는 18세 때 아직 개종하지 않은 시기에 처음으로 요셉 스미스를 보았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그의 이웃인 존 존슨의 농가 입구에 서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예언자는 “낮고 침착한 음성으로” 모로나이의 방문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나 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내적인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었고 “모든 청중에게 그가 솔직하고 진지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았다.” 침례를 받은 후에 로렌조 스노우는 요셉 스미스의 “전신이 빛났던” 커틀랜드 성전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했다. (데저렛 뉴스, 1899년 12월 23일)

그러한 빛을 보는 데는 분명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올슨 프랫은 요셉이 계시를 받을 때 그의 주변에서 빛나던 빛을 보았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계시의 영으로 가르쳤으며 또한 계시의 영에 의해 평의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얼굴이 특별히 깨끗해지고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집, 9 : 89)

예언자 요셉의 또다른 훌륭한 특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태도였다. 그의 부친은 1834년에 그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으며 요셉의 소년 시절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순종심이 강한 아들이었느니라. 그대 부친의 명과 모친의 훈계를 그대는 존중하고 순종했느니라.” 요셉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손님들에게 방을 제공해 주며 자신보다 말일성도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으며 침례 요한과 고대 사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회복시키셨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어디에 살든지 조롱과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 요셉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여 인기를 얻고자하는 아침꾼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부와 위협의 압박 아래서도 그의 성역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사명을 입증해 주는 가장 훌륭한 것은 그가 성도들과 가깝게 지낸 것이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도 없이 연단에서 말씀했으며 가식없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생활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그의 연약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현에 대한 사실은 사실처럼 명백하게 언어로 묘사되었다. 죽음을 당하기 한 달 전에 그는 다시 한 번 간증을 했다. “나는 내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만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틀끝만한 잘못도 없습니다.”

요셉의 받은 계시 가운데 관석이 되는 것은 산 자의 영원한 인봉과 죽은 자의 구원이었다. 이러한 교리는 1840년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소개할 때부터 1844년 그가 죽을 때까지 가르쳐진 예언자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다. 당시 관리 사도들은 순교에 관한 말씀을 교리와 성약에 추가 시켰으며 요셉의 사업 중 놀라운 일들을 포함시켰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교성 135 : 3)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복음이 무수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외침은 이해될 수 있다.

참된 예언자와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예언자는 그의 아내와 가족, 교회, 세상에서 행하는 선교 사업, 모든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인봉의 관계에서 이러한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 성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요셉은 십이사도에게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충만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 의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 인류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4 :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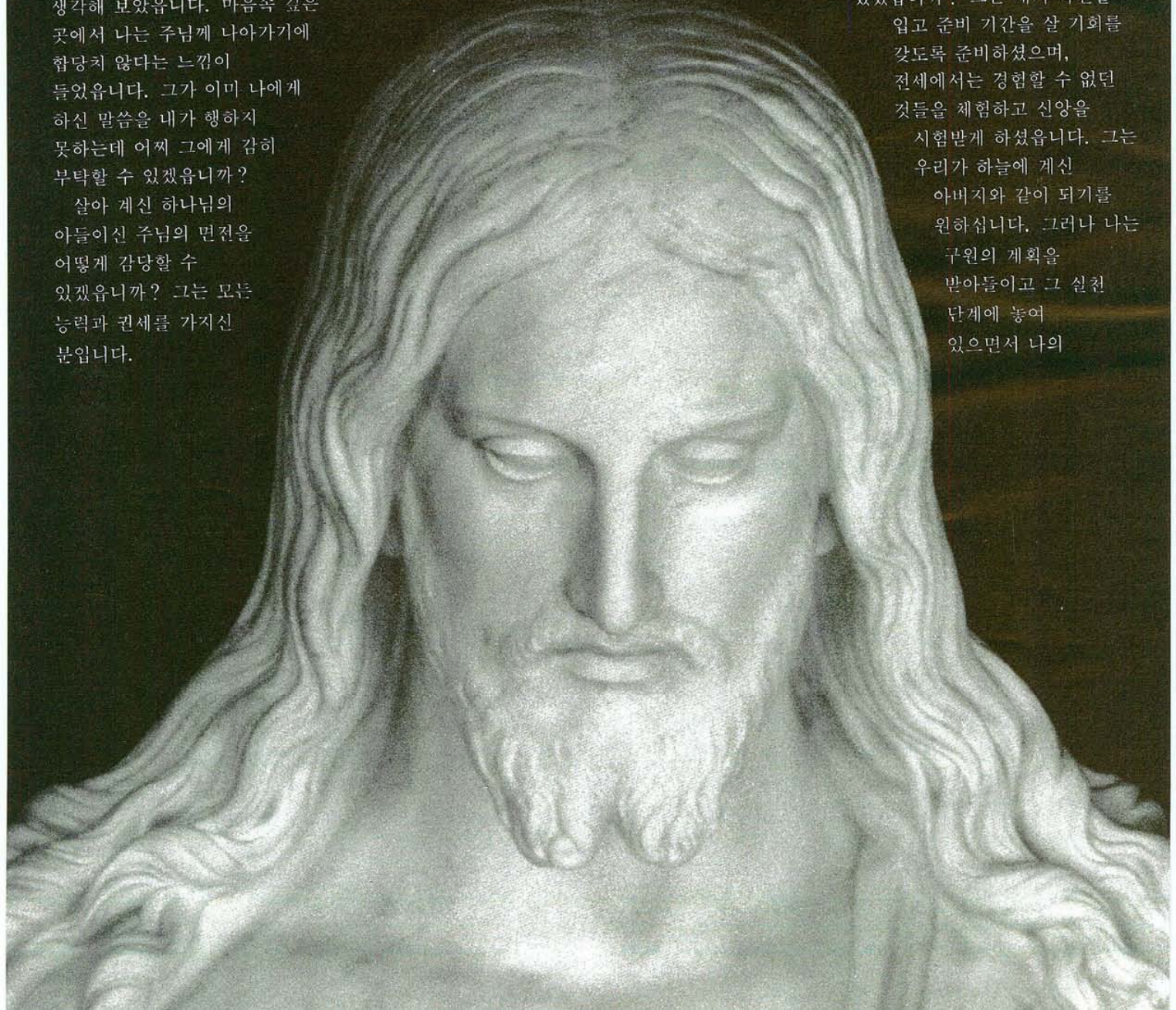
# 내가 어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안젤 엠 보노안

**스** 테이크 대회 신권 역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여쭙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합당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미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에게 감히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면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육체를 그 손안에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내가 육신을 입고 준비 기간을 살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셨으며, 전세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체험하고 신앙을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실천 단계에 놓여 있으면서 나의





인생에 주어진 것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날 차례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나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물을 바라보고 깨닫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나의 처지를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나는 오두막집에 태어났으며 부유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밤에 동물을 재우는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라 동물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는 나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하셨지만 나는 자주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어떻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절대자이며 왕중왕이십니다. 그는 내가 인내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기분을 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적대감을 품습니다. 비판을 받게 되면 화가 납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대군을 명령할 수 있는 그는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과 비웃음을 보내며 웃을 벗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큰 희생을 겪으신 주님의 면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로 그의 모든 땀구멍에서 값진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대부분의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또는 그들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가장 바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병이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굶주리면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상이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 손을 벌리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그가 나에게서 단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는 자신의 건강과 건강 진단 계획을 생각합니다. 파티가 있을 때 고아와 과부는 맨 나중에 초대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면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 이름을 받들며 그 이름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마음으로 그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일요일에 오직 몇 시간 동안만

그를 섬깁니다. 한달에 한번씩 이웃을 방문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그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무 지명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왜 하필이면 나람?”

알과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님의 면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고 사탄을 멸할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그들)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교성 19:18)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나는 “단지 인간”이라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을 계속 옹호합니다. 나의 무릎은 구부러 무릎을 꿇기에는 너무 뻣뻣하고 어렵습니다. 나의 목에는 머리를 숙이기에 힘겨운 강한 뼈들이 많습니다. 나의 혀는 꼭 묶여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나는 세상의 변칙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귀는 즐거운 소리를 듣습니다. 나의 마음은 일시적인 부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웃의 필요 사항에 무감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신다면 나는 어리석게도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기를 간청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필요함을 압니다. 나의 영혼은 구속주를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나의 구속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옛날의 니파이처럼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니파이서 4:17) 그러나 또한 나도 니파이처럼 주님 안에서 나의 구원을 봅니다. 니파이처럼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며 또한 주께 고하여 오 주여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나이다. 진정 나의 영육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당신 안에서 기뻐하겠나이다.”(니파이서 4:30)

나는 주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그를 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그를 만날 특권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무릎에게 나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도록 경건히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죽고 난 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신권의 권세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배도가 시작되었다.

기독교 세계는 기록되어 초기 성도들에게 전달된 계시만을 갖게 되었다. 후에 이 기록들은 수집되어 고대 예언자들의 기록과 함께 구약 및 신약성서를 이루게 되었다.

기독교사와 그 발달 과정에서 성경이 끼친 영향과 가치는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일반 대중에게 주어지는 경전적인 계시가 더이상 없었으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있는 유일한 책이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결되고 완전한 것으로 믿는 이 책에서 어린 요셉 스미스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든 말씀이 나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겸손한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은 영화로운 시현이었다. 1400년 동안 닫혀 있던 하늘이 다시 열렸으며 계시가 다시 한번 이 지상에 주어지기 시작했다. 천년 이상 동안 지상에는 육신의 몸을 하고 살아 있는 예언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으며 천사가 성역을

베풀고 고대 경전이 다시 번역되었으며 교회가 회복되었다.

요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던 1820년 봄부터 예언자가 죽임을 당하던 1844년의 끔찍한 날까지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선택된 사람을 통해 계시로 끊임없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도 계시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예언자의 외투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예언자에게서 예언자에게로 전해졌으며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는 예언자가 입고 있는 것이다. 계시는 전임 예언자로부터 신권의 권능의 열쇠를 이양받음과 더불어 계속된다.

말일의 신성한 계시와 영감받은 선언문은 현재 우리가 교리와 성약이라고 부르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 특별한 경전에는 말일에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설립과 규정에 관한 주님의 권고가 담겨 있다. 그 책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교회 회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메시지와 경고와 권고는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페이지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리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초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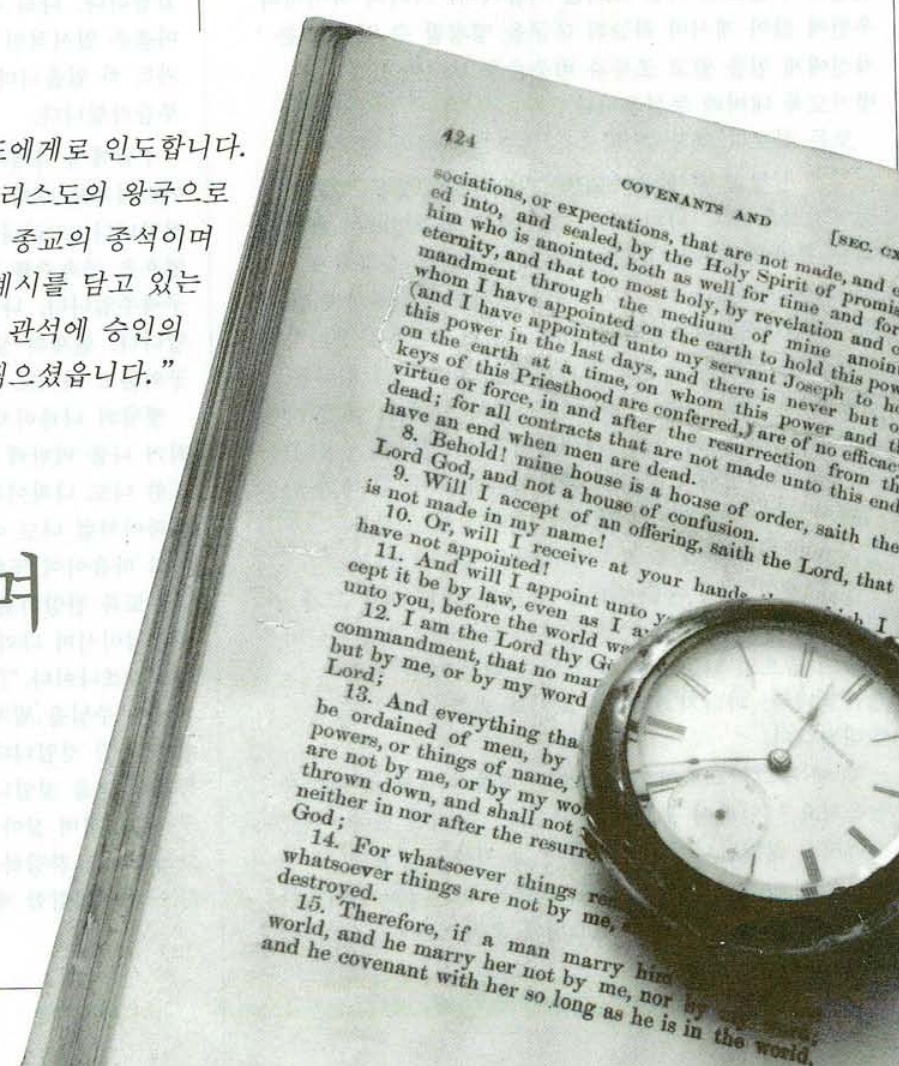
“물론경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교리와 성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합니다. ...물론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말일의 계시를 담고 있는 관석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종석과 관석에 승인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 기록은 참되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1989년도 학습 과정인 교리와 성약 소개





교리와 성약은 성경, 물몬경, 값진 진주와 더불어 교회의 표준 경전이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은 고대 기록의 번역이 아니라 그 기원이 현대이기 때문에 독특한 경전이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의 근원을 분명케 해 주셨다.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이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교성 1:24)

그는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진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의 종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알게 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구하였으며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죄를 지었으며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받게 하려 함이요.

“겸손하였으며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여 때때로 지식을 얻게 하려 함이요.”(교성 1:25~28)

교리와 성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예언자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때에 따라” 받은 것이다. 그 인도는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계시에는 신화의 본질, 인간의 기원, 사탄의 실재, 육신의 목적, 순종의 필요성, 회개의 필요성, 성령의 역사, 구원에 관계되는 의식과 집행, 지구의 운명, 부활과 심판 이후의 인간의 상태, 결혼 관계의 영원성, 가족의 영원한 본질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복음의 교리가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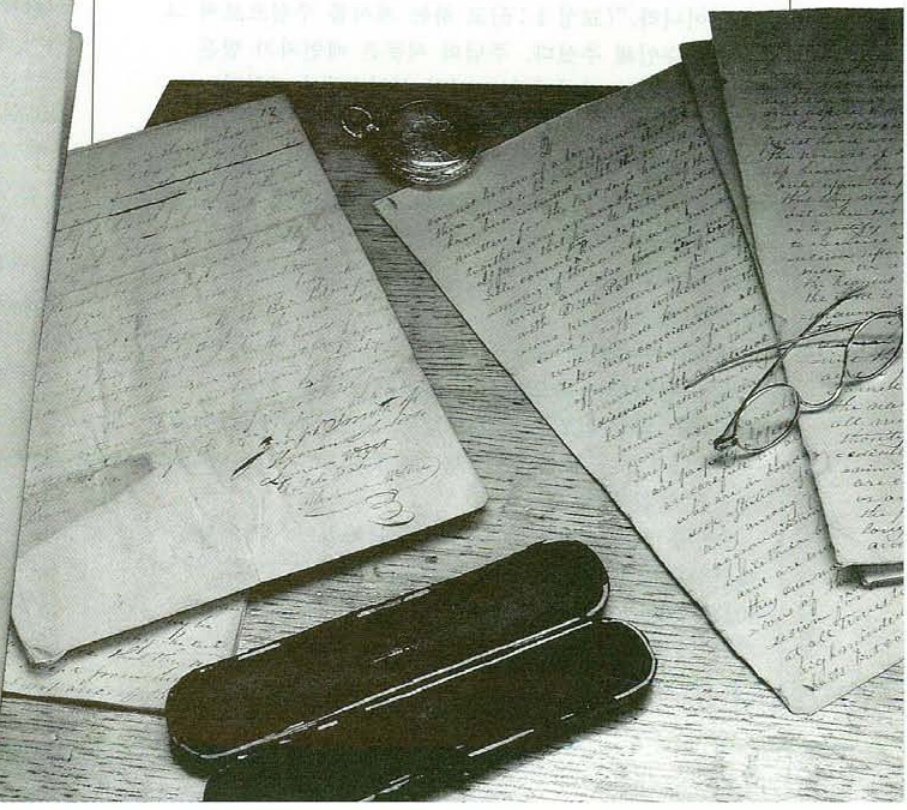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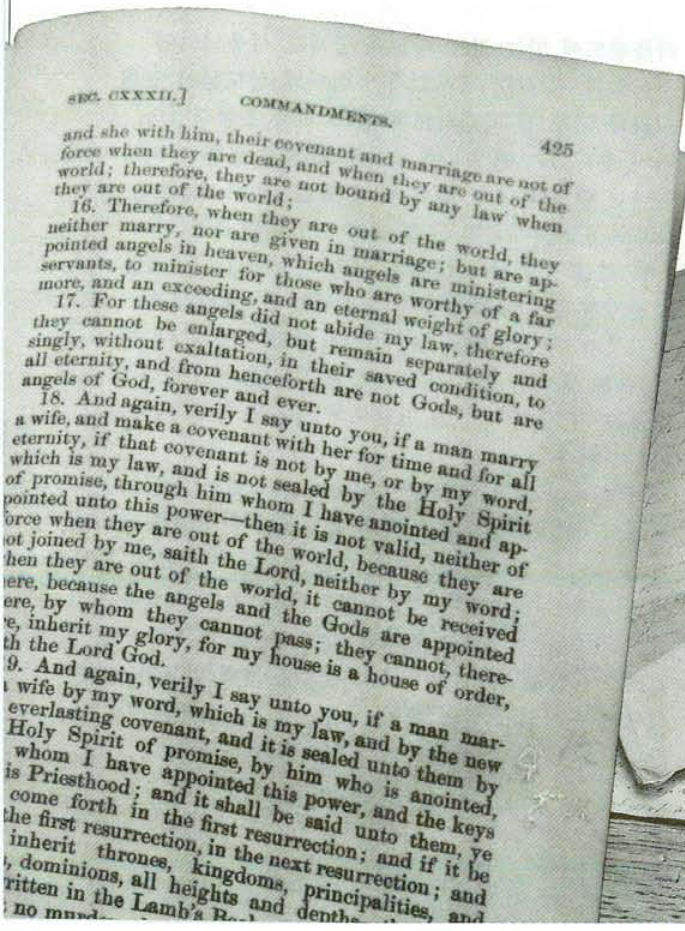
또한 교리와 성약에서는 교회의 관리 조직과 더불어 여러 신권 역원의 부름과 책임이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즉 그의 신성, 위엄, 완전함, 사랑, 구속의 권세에 대하여 주어진 간증은 이 책을 인류에게 크게 가치있는 것이 되게 해주며 지상의 모든 부모라도 더욱 가치있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진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보라, 주는 하나님이지요,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아멘.”(교성 1 : 37~39)\*

#### 교리와 성약을 갖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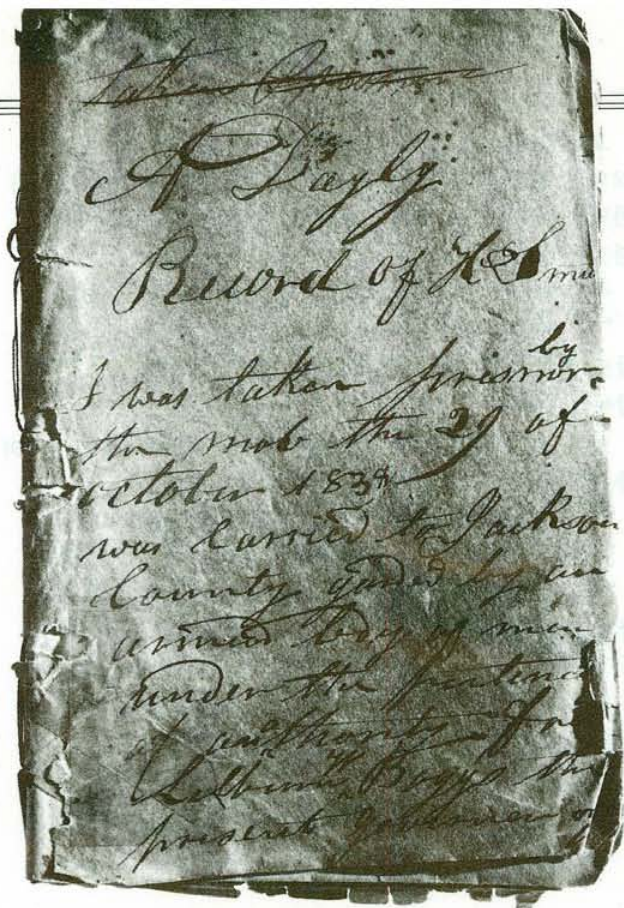
1830년 4월에 교회가 조직된 직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가 받은 계시의 사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교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사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그것이 출판될 것을 고려했는지도 모른다.

1831년 11월 1일과 2일에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모인 장로들의 대회에서 계시가 수집되어 출판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회 첫날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의 책에 부치는 서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출판케 한 책이니라.”(교성 1 : 6)고 하는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주님의 서문은 예언자가 받은 첫번째 계시는 아니지만 **교리와 성약** 1편이 되었다.

주님의 계명에 응하여 예언자는 즉시 계시를 선정하여 교회 회원인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가 인쇄소를 운영하던 미주리주 인디펜덴스에서 출판할 준비를 했다. 준비된 계시를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인디펜덴스로 가져 가는 중요한 책임이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에게 주어졌다.

1833년 여름까지 계시의 3분의 2가 인쇄되었다. 그러나 교회를 반대하는 폭도들이 인쇄기와 인쇄된 것들을 파괴하는 바람에 일은 중단되었다. 교회 회원들은 인쇄된 것 중 일부를 구할 수 있었으며 계명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몇권을 출간했다.

2년 후 최초의 교리와 성약이 출판되었다. 그 책에는 대관장단을 필두로 하는 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재조정된 102편이 수록되었다. 그 책에는 또한 일곱 개의 “신앙 강화”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834~1835년에



1833년 여름 계명의 책이 삼분의 이쯤 인쇄되었을 때, 한 폭도가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의 인쇄기를 파괴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역경은 1838년 10월 27일자, 하이람 스미스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미주리주에서 계속되었다.

커틀랜드에 있는 장로 학교의 공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강화는 계시로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교리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포함되었다. 두 가지 흥미있는 기사, 즉 하나는 결혼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에 관한 것이 역시 포함되었다. 새로운 책은 1835년 8월에 개최된 교회 대회에서 승인되었다.

111편을 수록한 확대된 **교리와 성약**이 1844년 6월 예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출판되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지시에 따라 올슨 프랫 장로가 절로 나는 136편의 새로운 판이 1876년에 출판되었다. 3년 후에 프랫 장로는 각 편에 각주를 달았으며 결혼에 관한 기사는 제외시켰다.

약 40년 후인 192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교리와 성약을 개정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그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본 형태를 고안하여 본문을 두 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편마다 앞에 요약한 내용을 실고 각주를 개정하고 확대했으며 색인을 마련하였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복수 결혼에 관해 발표한 1890년 성명이 포함되고 일곱 개의 신앙 강화는 정식 계시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 교리와 성약

존 더블류 웰취

## 매우 중요한 주제

교리와 성약에는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대관상들이 받은 현대 계시이다. 그것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율법과 교리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며 영감과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

나는 수년 동안 교리와 성약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많은 것들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에는 많은 기본적인 내용, 근본 자료, 직접적인 경험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읽기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계시가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특별한 순서가 없다. 주님께서서는 필요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시와 가르침을 주셨다. 교리와 성약은 오늘날에도 체계적으로나 주제별로 또는 모든 계시를 받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한편 한편 똑같은 방법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래서 교리와 성약은 예를 들어 니파이의 감동적인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잊을 수 없는 비유보다는 내가 읽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다. 교리와 성약을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각각 다른 주제와 통찰력이 담겨 있는 바울의 서한을 읽는 것과 비슷했다.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나는 그 책이 어떤 중요한 주제와 분명한 목적을 다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교리와 성약이 다루는 주제와 목적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나는 교리와 성약의 각 편별로(분량이 많은 편은 단을 나누어) 주제 목록을 만들면서 그 책의 모든 구절들을 주제별로 설명하려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본문을 그대로 파악하려 했으며 각 편마다 “이 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혹은 “이 편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공부로 나는 여덟 가지 주요 주제를 발견했다.

1. 경고의 음성
2. 구원의 계획
3. 경전
4. 신권
5. 교회 조직 및 행정
6. 교회 회원에게 주는 계명
7. 선교 사업 및 선교사에게 주는 가르침
8. 개인에게 주는 개인적인 가르침

(그리고 나는 135편과 136편 34~42절에 있는 요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한 기사를 추가시켰다.)

내 판단으로는 이 여덟 가지 주제에 교리와 성약에 있는 모든 구절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책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마음속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이러한 이해는 내가 분명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며 그 책이 나에게 의미있는 것이 되게 해주었다.

그 책에서 내가 살핀 주제를 설명해 본다.

### 1. 경고의 음성

교리와 성약에서보다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 책은 드물다. 경고는 온 세상의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왕에게 그리고 매우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누구든 이 책을 읽는 자는 경고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인간들이 고의로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신다.(교성 56 : 14~20 참고) 그는 죄를 싫어하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며(교성 1 : 31 참조) 악인에게





하나님의 신권에 관한 기본적인 광범위한 지침서

진노하시리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교성 5:8, 63:2 참조)

그러나 이 경고의 음성은 불합리한 격노의 음성은 아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선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다소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이다. 더우기 계시에는 자비의 팔과 회개의 권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 2. 구원의 계획

교리와 성약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많은 경우에 이 책은 이 교리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전해 주는 유일한 근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독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전세의 생활, 세상의 창조, 아담의 타락, 영혼의 가치, 순종하고 용서를 얻고 빛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천년 통치, 부활과 영광의 등급,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통해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을 얻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절한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형벌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이 많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영원한 영적인 행로에 포괄적인 이해력을 얻게 된다.

## 3. 경전

교리와 성약에 있는 또다른 분명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일의 중요성이다. 이 계시들은 반복해서 경전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는 물론경 출현의 과정에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계셨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셨다. 그는 경전을 무시하는 자는 누구나 무서운 저주의 위협에 처하리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셨다.(교성 84:54, 57 참조)

따라서 교리와 성약의 많은 편들이 직접 경전에 관해



다루고 있다. 어떤 편에서는 경전의 정의를 내려 주고 있다. (교성 68:1~6 참조) 다른 편에서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로써”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단언하고 있으며(교성 1:29, 20:8) 몰몬경의 번역과 중요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전해 준다. 요셉 스미스의 영감에 대한 계시와 몇 가지 구체적인 구절에 대한 설명도 있다.

#### 4. 신권

몰몬경의 출현과 함께 신권의 열쇠도 회복되었다. 교리와 성약은 신권에 관한 주제를 반복해서 말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권의 본질과 그 직분 및 의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전해 주고 있다. 이 지침에는 또한 신권의 근본 반차가 설명되어 있다.

그 책에는 아론 신권의 회복(교성 13편 참조)과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 (교성 27:5~14, 110:6~16 참조) 신권의 각 직분이 영감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정의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은 신권의 직분이 의무를 수행하는 자세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신권의 의식을 집행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다. 121편 뒷부분에는 신권의 권리를 사용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견줄 수 없는 훌륭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편에는 유아 축복, 침례, 성찬, 엔다우먼트,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등에 관한 설명이 있다.

#### 5. 교회 조직 및 행정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를 지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단체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교리와 성약은 이 단체가 행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가르침은 고무적이고 교훈적이고 간결하고 요구적이며 가치있는 것이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하고 높은 차원의 희생과 순종을 하도록 영감을 준다.

교리와 성약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나 주는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교성 1:30)는 확신을 주는 이외에도 우리에게 교회 행정에 중요한 많은 원리를 알려 준다. 여기에는 회원 기록 카드의 사용, 교회 역사 보관, 모임 진행 방식 등이 포함된다.

## 6. 교회 회원에게 주는 계명

개인에게 해당되는 계명들이 교리와 성약에도 나타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을 하려는 어떤 사람도 이 책에 제시된 복음의 율법에서 보다 더 잘 배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규칙에는 살인, 도적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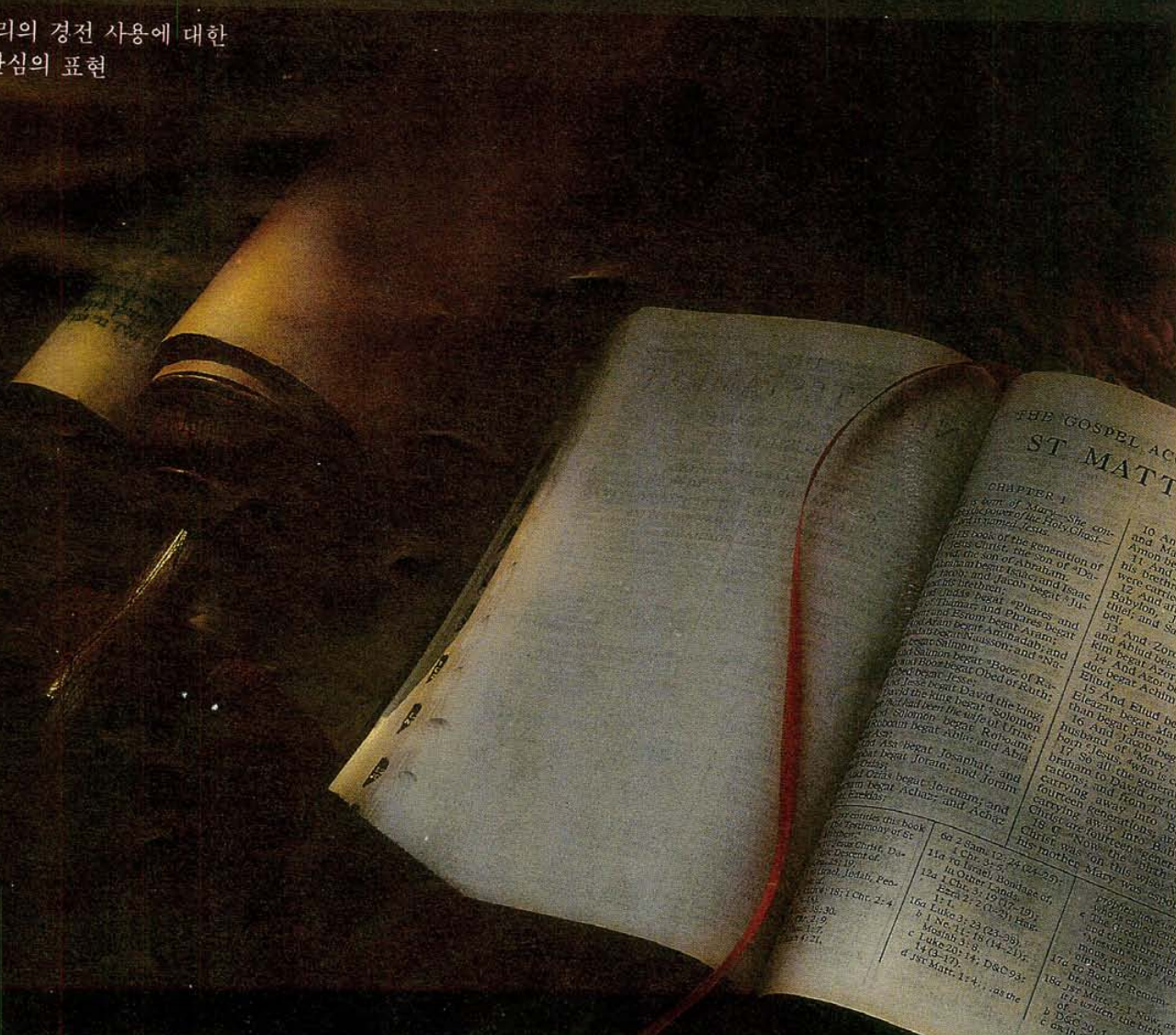
부정직, 간음, 형제애, 자만심, 게으름, 공평함 및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의무와 관련된 지침이 주어졌다. 우리는 또한 안식일 준수, 가족과 자녀를 가르침, 지혜의 말씀, 교육을 받음, 가난한 자를 돌봄, 물질주의와 빚을 피함 및 많은 주제에 관해 권고받고 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몇 편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시대에 뒤진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커틀랜드와 미주리에 있는 정진 또는 나무에 있는 나무관동과 같은 구체적인 건물 건립에 관해 교회에 준 지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시 사항 뒤에는 오늘날 우리가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재산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가끔 메시지는 현남의 법, 십일조, 정치기적분 및 성전 건립과 같이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 7. 선교 사업 및 선교사에게 주는 가르침

분류 자체만으로도 가치있는 것은 복음을 진과하도록

경전 및 우리의 경전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포함하여 선교 사업을 다루는 편들이다. 이 편들은 분량이 상당히 많으며 주님과 교회와 개인에게 있어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르침은 제4편으로부터 시작된다.

“보라, 바야흐로 기이한 일이 인간의 자녀에게 나타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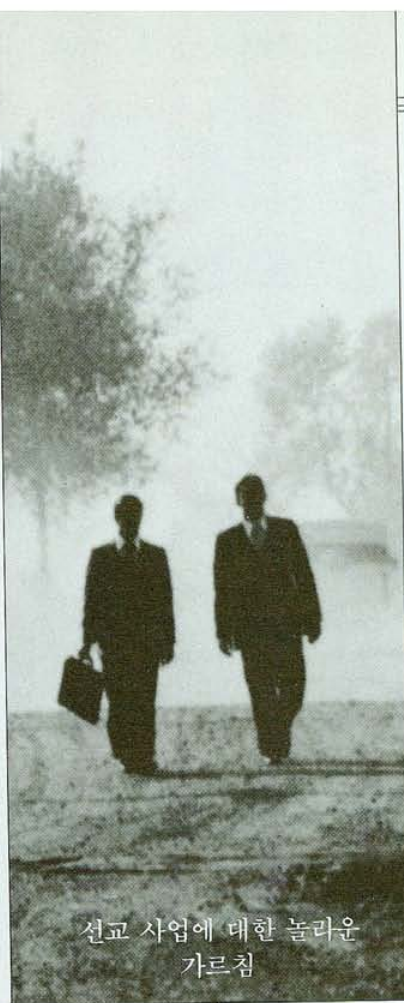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4:1~2, 6~7 참조)

모든 회원과 선교사는 교리와 성약이 선교 사업에 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알게 됨으로써 유익을 얻게 된다. 또한 교리와 성약에서는 많은 개인에게 선교사의 부름이 강력하게 주어졌다.

## 8. 개인에게 주는 개인적인 가르침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선교사 부름 이외에도 교리와 성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계시도 기록되어 있다. 오십 명 이상의 다른 개인의 이름이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자들은 이 말씀을 자주 무시한다. 그러나 집합적으로 볼 때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해 갖는 사랑과 염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바를 알고 또 염려하고 계신다.

특정한 개인에게 주는 이 말씀들은 또 다른 이유로



선교 사업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

중요하다.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내용이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지시 사항은 우리 모두가 상기해야 할 일이다.

“진실로 나는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이르노니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로써 주 앞에서 질책당할

필요가 있느니라

“네 가족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며 네 말은 더욱 성실히 마음에 새겨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있는 곳에서 옮기우리라.”(교성 93:47, 48)

주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주신 가르침에 포함된 일반적인 원리들을 모든 독자가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교성 93:49 참조)

나에게 있어서 교리와 성약은 대개 이렇다. 경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백성—그들의 삶의 방법, 인생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의 그들의 위치 등이다. 나는 교리와 성약이 무엇을 전해 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해주고, 얼마나 충만히 전해 주는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는다.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교리와 성약에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께서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교성 1:24)\*

존 더블류 웰치는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대의 교수임



# 세 개의 작은 동전

리차드 에이 룬



있었던 그의 어린 아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는 그 자매와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돕고 싶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상당한 돈을 내 놓았습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수입에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의 가족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굳은 결의를 보고 나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그에게 그의 희생적인 선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 젊은 어머니와 그 아이들을 위해 성탄절이 더욱 밝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또한 이름을 알리지

**감** 독으로서 첫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 와드에는 한 어머니가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으며, 그녀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그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깨끗이 치웠으며 돈을 벌기 위해 바느질도 했지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세 명의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활기차고 극성스런 어린 아이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반들들과 싸우는 것을 떼어 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족을 도왔습니다. 나는 성탄절이 되기 두 주 전쯤의 어느 일요일에 감독실로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 형제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젊은 어머니와 그 가족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의 기부금을 받아들여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 형제와 함께 사무실에

말아달라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더라도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의 기억 속에 남게 한 것은 또다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형제의 기부금이 크게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는 했지만 그 사건은 내가 그 형제의 기부금으로 그 가족을 도울 수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의 방문이 있고 난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불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내가 십일조 결산을 하고 있을 때 조용히 감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밖에는 그 전 주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형제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던 여섯 살된 소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는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감독실로 걸어들어 간 후에—이것은 대개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두려운 경험이라고 늘 생각하면서—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갖고 안절부절하더니 결국 세 개의 동전을 꺼내어 나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는 그 동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두인데 오랫동안 갖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때가 묻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그의 아빠가 그 자매를 돕듯이 그의 세 친구를 돕는 데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고일 때 그는 내가 그 동전을 세 친구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전

가운데 하나는 다른 두 개보다 가치가 낮은 것이라 세 소년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한 아버지의 희생적인 모범, 감독에 대한 어린 소년의 신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어린이의 행동은 분명 간사한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나는 이 소년을 곧 그의 용서하는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된 소년들과의 다름에서 끌어냈었습니다.

나는 그를 끌어 안으며 나의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참으로 그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문가로 데리고 가서 악수를 한 뒤 이번 성탄절에는 그의 훌륭한 선물로 그의 친구를 돕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그가 뒤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감독님, 아무한테도 내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의 어린 친구여, 나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날 우리가 느꼈던 사랑과 자비의 조용한 성탄절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됨을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그 동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인데,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때가 묻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 프레디

다이안 홀메스 테스페인

10년 전에 나에게 주어졌던 매우 특별한 성탄절 선물에 대한 추억은 아직도 내 생애에서 가장 영감적이고 의미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 박약아 보육원에서 자원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란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일과를 도와 주고 음악을 가르치며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여러 가지 오락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어린이들을 점차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열의가 높은 학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덟 살부터 열 여섯 살까지의 연령으로 이루어진 여덟 명의 나의 학생은 배우려는 열의를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전혀





**프레디** 는 반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나의 인내는 한계에 다달았으므로 프레디를 반에서 내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배우고 가르침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프레디였습니다.

프레디는 열 네 살이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약간 장애를 입었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보육원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랬듯이 아주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으며  
 보육원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프레디에게  
 실제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나는 프레디가 소란을  
 피우는 장본인이었지만 내가 가르  
 치는 반에 있도록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프레디를 반에서 쫓아낼까 하  
 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이 프레디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알  
 고 있었기 때문에 반원들은 그런  
 상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작은 말썽꾸러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념을 파악  
 한 반면 프레디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매주 나는 각  
 어린이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전해 주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읽을 수  
 없었지만 각자 복사된 성구를 받아  
 그의 사물 가운데 놓아 두어 매일

보고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전해 준  
 성구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게  
 했으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는  
 내가 그 구절에 해당하는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그 구절과 그림을 침대에  
 매달아 놓았으며 그렇게 하여 내가  
 가르치는 반원의 의무인 저녁 기도  
 때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레디는 내가 성구를 줄  
 때마다 그것을 내 앞에서 찢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디는 다른 반원들처럼 정박  
 증세가 심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배우려는 열의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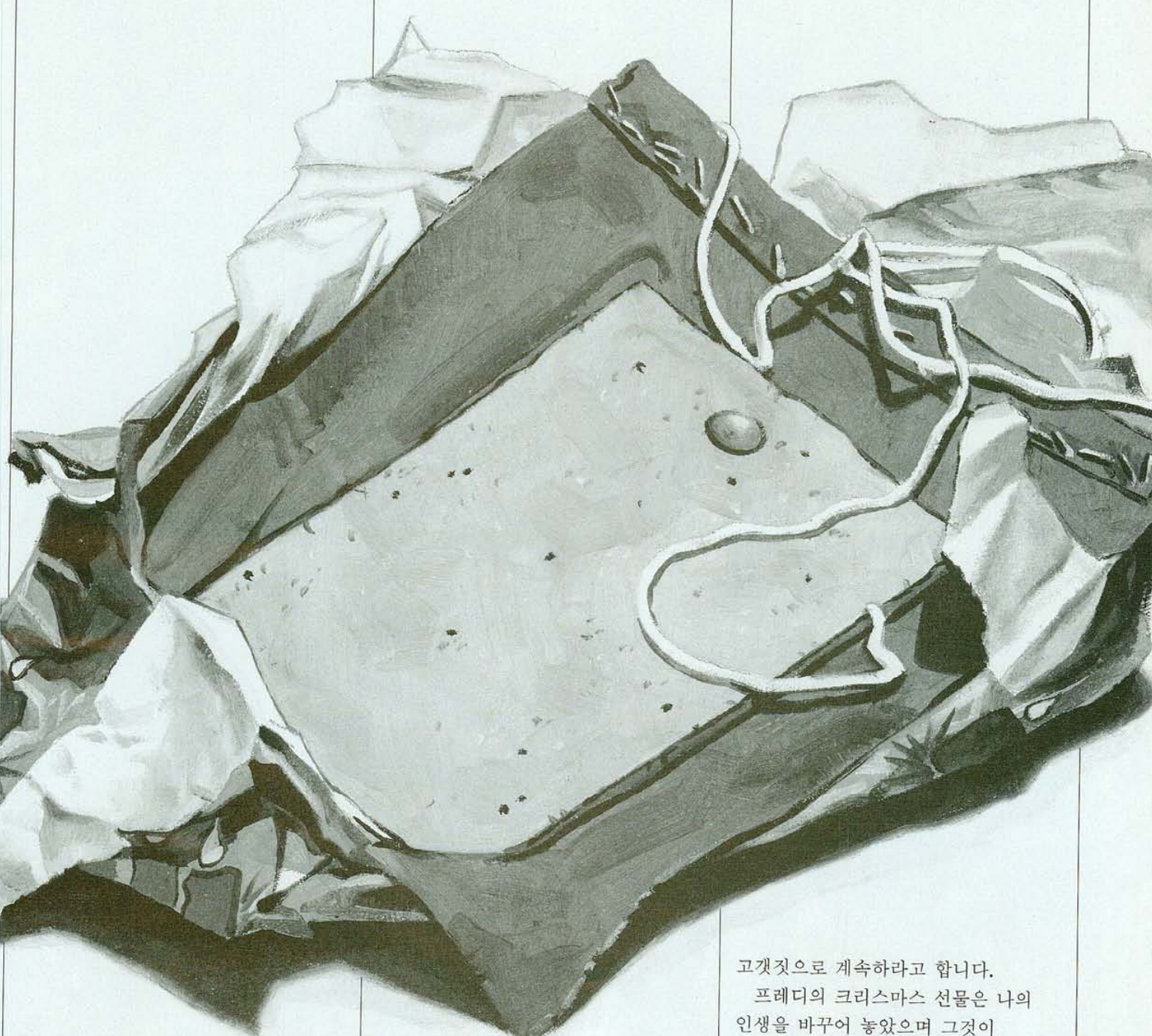
프레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그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를 일깨워  
 주겠다는 강한 욕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습니다.  
 프레디는 분명히 나를 시험대에 올려  
 놓고 있지만 나는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 방법이  
 없었으며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를 반에서 내보내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흥미있어 했으며 잘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프레디는 예외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수일 전 보육원은  
 전원을 위해, 즉 직원, 자원 봉사자,  
 학생, 부모, 기타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프레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 다니다  
 결국 그의 방에서 꾸깃꾸깃하고 낡아  
 보이는 꾸러미를 만드느라 애쓰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파티가 진행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프레디가 나에게 다가와 그 꾸러미를  
 내 무릎에 던져 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꾸러미를 열었을 때  
 나는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선물이 들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친  
 천조각으로 위에는 손바느질을  
 했으며 중앙에는 폴로 쿨크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벽걸이었으며  
 가운데 있는 쿨크는 매주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달아 놓는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프레디가  
 3개월간 그것을 만드는 일을 했으며  
 디자인은 그의 아이디어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사랑과  
 희생과 무엇보다도 인내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디는  
 그것을 만드는 동안 좌절과 실망을  
 겪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프레디는 내가 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그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해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레디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는 이 지상에서 잊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내게 준 선물은 나의 집에 걸려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낡고 너덜거리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프레디를 보며 나에게 인내의 덕을 가르쳐 준 프레디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프레디가 그곳에서 조용한

고갯짓으로 계속하라고 합니다.

프레디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것이 가르쳐 준 교훈은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어린이를 나의 교사로 삼을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이안 홈메스 데스페인은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스테이크 인디애나폴리스 제6워드의  
반주자임







#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몰론경의 성탄절 이야기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몰론경에도 그러한 기사를 갖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힐라민서와 니파이삼서에는 주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 미대륙에 주어진 표적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예언자 니파이에게 분명하게 들려온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리라고 한 음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Robert T. Barrett



“치세 팔십 육년...에 사뮤엘이라 하는 레이맨인이 있어 저가 제이라헤물라 땅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여러 날을 두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쳤으나 백성들이 저를 몰아낸지라 저의 땅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보라 주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사 다시 돌아가 마음에 전해지는 대로 모두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하시느니라.

“사뮤엘은 백성들이 성내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고로 성벽 위에 높이 올라 서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주가 저의 마음에 전해 주시는 모두를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더라...

“보라, 저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리니 오 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하시러 오시리니

“보라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그가 오실 때에 하늘에 큰 빛이 있어 저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둡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마치 낮과 같은 것이요,

“한 낮과 밤과 그 다음 낮이 모두 한 날 같아 밤이 없으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아 두 낮과 밤이 지남을 분명히 알 것이로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밤이 어둡지 아니할 것이라. 주가 나시기 전날 밤이 그러하리로다.

“또한 보라,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 별이 돋으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보라, 이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으리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 주는 천사를 보내사 너희에게 이 일을 전하라고 내게 명하시었고, 이 일을 너희에게 예언하라 명하시며

이르시기를, 이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회개하고 회개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전하라 하시었으니...

“또한 너희에게 태초에 만물을 지...시고 하늘과 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의 오심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를 믿어 너희의 죄를 회개하면 저의 공로로 인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치세 구십 이년초에 보라 예언의 말씀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니 더욱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졌음이라.

“그러나 백성들 중에도 레이맨인 사뮤엘의 예언의 말이 이루어질 시기가 지난 것이라 말하며

“저들의 동포를 비롯으며 이르기를, 보라 때는 지났고 사뮤엘의 말은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믿던 너희들의 기쁨과 신앙이 헛된 것이라.

“이같이 말하며 저들이 온 땅에 크게 소동을 일으키는지라, 믿는 자들은 전해진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인가 하여 크게 근심하였으나,

“보라 저들은 하루 낮과 하루 밤과 또한 낮과 밤이 없어 하루 같으리라 한 그 날을 굳게 바라 기다렸으니 저들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함을 알려



“보라,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 별이 돋으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지나 어둠이 덮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은 밤이 어둠지 아니하며 놀라더라.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던 많은 무리가 땅에 쓰러져 사경에 이른 자같이 되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꾸민 저들의 계획이 깨어져 버렸음을 알았음이요, 미리 전해진 표적이 이미 목전에 보여졌음이라.

“저들은 차차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였음이라.

“이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날을 임의로 작성하여 그날에 이르도록 선지자 사무엘이 전한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이기로 작정하매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백성들이 이같이 간악함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여,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 백성들은 선조의 전언을 믿은 것으로 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었음이라.

“저가 종일을 두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

“보라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와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인간들에 전하게 한 모두를 이루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행하리니 아버지의 뜻을 행함은 나로 임함이요 아들의 뜻을 행함은 나의 육신으로 임함이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보이리라 하시리라.

“니파이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 이르신대로 성취되었으니, 보라 해는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또한 북방에 있는 자나 남방에 있는 자나 모두 크게 놀라 땅에 엎드러졌으니

“여러 해를 두고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을 증거하였으매 저들이 이를 알았음이요 전해진 기사가 이미 목전에 보임이라. 저들은 저들의 간악함과 저들의 불신앙으로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날에 밤이 새도록 어둠이 덮이지 아니하고 빛이 밝아 한낮같고 순리대로 다음날 해가 솟으며 이미 보여진 표적으로 인하여 저들은 그날이 주가 나시는 날인줄 알았고

“만사가 예언의 말씀대로 일확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새로운 별이 나타났느니라.

“이때로부터 사탄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려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저들이 본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게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거짓말과 간교한 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본대로 믿어 주 앞에 개심하여 돌아 왔으며...

“이같이 하여 거룩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중에 치세 구십 이년이 지났고”(힐라멘서 13 : 1~4, 14 : 2~9, 12~13; 니파이삼서 1 : 4~22, 26)\*



그리스도의 영광 증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간증을 전할 때에만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의 등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영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울 때 일반적인 것을 배울 때처럼, 즉 독서, 듣는 것, 사색하는 것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똑같은 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모두 특별한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게 될 것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총관리 역원이 되기 전에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한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경하게 말하는 사람 옆에 앉았는데 나는 그에게 나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굴복하려 하지 않자 범람가인 그는 간증 문제에 관하여 아마도 궁극적인 것이 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이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 성령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입니다. 성령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소금의 맛은 어떤가요?

나는 아마도 간증을 현명하게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소금 맛이 어떤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는 “물론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소금 맛을 보셨는지요?”

“지금 막 비행기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지요.”

나는 “선생님은 단지 소금맛이 어떤지 안다고 생각하실 따름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맛이 어떤지 압니다.”

“만일 내가 한 컵의 소금과 설탕을 주고 맛보게 한다면 설탕과 소금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어린애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물론 나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도 소금 맛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맛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더듬거리며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달지도 시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이리이러하지 않다고만 말했지 이리이러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번 노력했으나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금을 맛보는 것같이 그렇게 일상적인 경험도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번 더 간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그 간증을 비웃고 정말로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소금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소금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말로는 선생님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는 진실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선생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압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써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성신이 가르치심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린도전서 2:13~14)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직접 도와 줄 것입니다. “사람이 성신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니파이서 33:1)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바로 이것이구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에서 말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경전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미묘하고 정화된 영적인 대화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음성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음성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게 된 후 물몬경에 있는 한 구절에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 경전에 대한 간증이 무한정 커졌습니다. 이것은 니파이에 대적하는 레이맨과 레뮤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을 꾸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파이일서 17:45)

니파이는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전하고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일서 32:3)

만일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한다면 대화하기 위하여 눈과 귀만 사용하도록 제한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설명한 영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순수한 예지가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 있으며 이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고 긴 공부를 해야 하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성령의 음성은 “크지도” 그리고 “거칠지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니”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니파이삼서 11:3; 힐라맨서 5:30; 교성 85:6~7)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열왕기상 19:12)인 것을 발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너무도 부드럽게 감쌌

성령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임입니다. 성령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에 충분하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가서 우리가 찾고 귀기울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강하고 감동적이고 영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그리

자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교화와 교육과 교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권능에 의하여 부름을 받지 않는 한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정시키는 위치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조심해서 간직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에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번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께서 여러 선교부장과 그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아내에게 이야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만일 내가 신성한 것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믿으려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하여 행한 것을 누가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 우리는 간증을 더욱 키워야 함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간증은 단번에 밀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키가 점점 자라듯이 그렇게 간증도 커집니다. 간증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즉각적인 응답이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억지, 강제, 강요, 압력, 요구 등의 단어는 성경과 관련된 우리의 특권을 설명하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시기가 되기 전에 콩이 싹이 트거나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촉진할 기온을 만들고 영양을 주고 보호할 수는 있으나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며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가서  
우리가 찾고 귀기울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커다란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인도하는 길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면밀히 계획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빛과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전에 있는 것을 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받은  
영적인 또는 세상적인 예시를 계시가 대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것을 키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배하는 일상적인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  
가운데 평범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규칙과 규정과 계명은 소중한 보호책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과정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계시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계시는 우리가 필요한 지점에  
도달할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힘써  
노력하며”라는 권고도 정말로 현명한 권고입니다. (교성  
58:27 참조)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나이다.”(니파이일서 11:17)

여러분의 간증에는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먼 나라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1년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으며 나의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가 단 1년 동안에 성숙해진 것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아닌 점진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 빛의 가장자리

선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간증을 얻기 전에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원리를 정말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간증은 간증을 전하는 데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어딘가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도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도약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영혼”은 진실로  
“여호와와 등불”입니다. (잠언 20:27)

자신이 읽은 것이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은 한 가지 일로서 필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자신이 간증한 것이 참됨을 가슴 속에서  
성령이 확인해 주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 간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것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지닌 것이 더 큰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더는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여 전하였으되, 백성들이 이를 보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였나니

“나 모로나이는...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5~6)

담대하게 간증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정직한 의도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때에 간증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조건  
반사를 일으키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며 그 반응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회의론자들은 성령의 방문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줄 신앙, 겸손, 순종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지성인, 실험가에 지나지 않는 사람, 거만한 사람, 불신자, 교만한 사람으로부터 간증이 감추어져 있으며 완전히 보호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간증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하여 신앙의 행위로서 간증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엘마가 그의 추종자에게 제안하신 실험과 같은 일종의 실험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증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간증을 전할 때에만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따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완전한 구현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간증을 전하기 전에는 간증을 찾거나 지니거나 증대시킬 수 없습니다. 간증을 아낌없이 줄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제 일단 간증을 받았으면 자신이 받은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선교부장으로서는 한 가지 엄숙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당시 나는 총관리 역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보좌 한 사람을 해임하라는 성령의 권고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 이외에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그를 해임하면 누구를 부좌로 부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성령의 권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주 계속되었습니다. 내 기도는 내가 드리는 방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시도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성령이 멍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성령의 은사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 은사를 다시 받은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또한 그 형제는 상처받지 않고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사업도 즉시 잘 되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거짓된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천사가 있는 것과 똑같이 거짓 영이 있습니다. (모로 7:17 참조) 악마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동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감정에 의한 것이거나 악마로부터의 권고인 것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해서 교회에서 정립되어 있는 신권 권능에 도전할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배도한 사람의 모든 교묘한 이야기나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도전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흔들이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악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확인할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는 너무나 신성하다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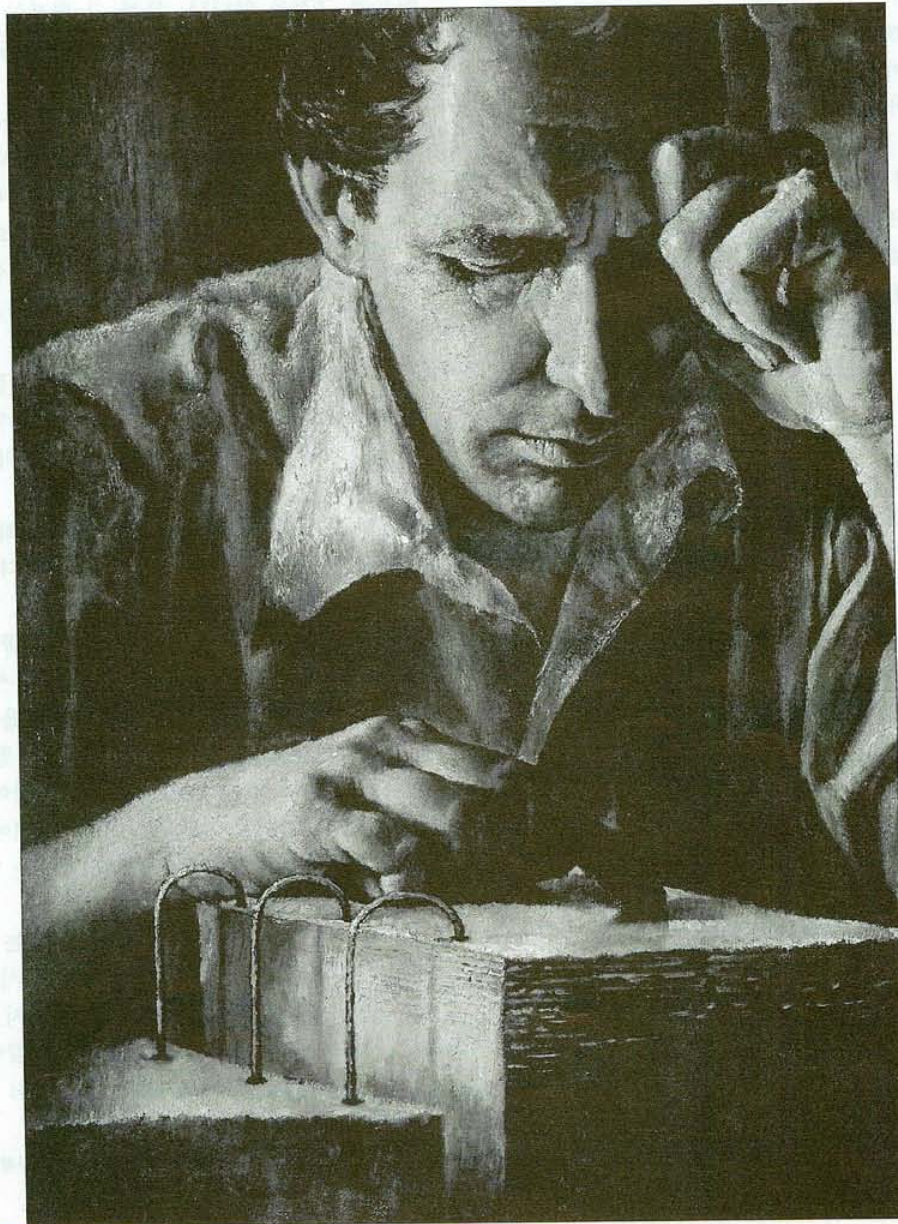
물론경은 참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십니다. 기적의 날은 끝나지 않았으며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은사는 교회와 더불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

(새로운 선교부장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 발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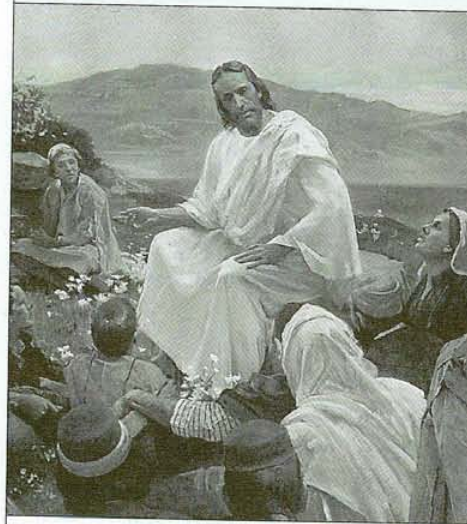
# 몰몬경 탐구



기도의 영으로  
몰몬경에  
접근하면,  
우리는 그  
신성한 능력에  
감동될 것이다.



물몬경은 성경이 참되며,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도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는 말씀에 매혹되었습니다. 사실, 낯선 판에 있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니파이가 알게 된 기록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전서보다 더 완전하고 자세했음(니파이일서 13:20~24 참조)은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입니다. 지노스, 지노크, 니움 및 이자이아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신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그들의 기록은 구체적이며 직선적입니다.

#### 성경 및 중동 연구

스티븐 이 로빈슨

대부분의 비밀일성도 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시대에 물몬경은 성경이 정확하며 때로는 매우 자세하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하며 초대 교회에서 예수에 대해 간증했던 것들이 참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산상수훈의 대부분이 초기 교회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결코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몬경은 구세주께서 설교를 하셨다는 마태의 주장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든 시 토마스

물몬경에는(이스라엘인이 종교에 관해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보다 먼저 온 야벳인을 제외하고 물몬경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근거를 둔 축제와 절기와 성일이 포함된 모세의 율법에 따른 종교를 알고 실천했음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의 계명을 지키며,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지”(엘마서 30:3)키는 백성으로 볼 때 구절 구절 풍부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고고학과 인류학

존 소렌슨

한 가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몬경을 오늘날에 적용되는 실제 상황에 관해 언급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너무 자주 존재하지 않는 땅에서 일어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처해 있던

**물** 문경에 관한 다음 보고는 확대되어가는 탐구자 그룹이 새롭고 흥미있는 방법으로 물몬경의 풍부한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그들의 탐구는 아직도 책에서 발견해야 할 많은 내용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책의 참된 힘은 영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즉 기도의 영으로 접근하고 물몬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생활하면 감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대해 간증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해주는 신성한 능력에 감동될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

수잔 이스톤 블락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이 그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의 이름을 매 1.7절 당 한번씩 사용했을 만큼 물몬경에서 중심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니파이일서 1:1)이라는 최초의 명칭으로부터 영원한 재판관(모로나이서 10:34)이라는 마지막 이름까지 101개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로버트 엘 밀레트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물몬경이 사람을 두 가지 방법, 즉 (1)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2) 그리스도의 적을 출현시킴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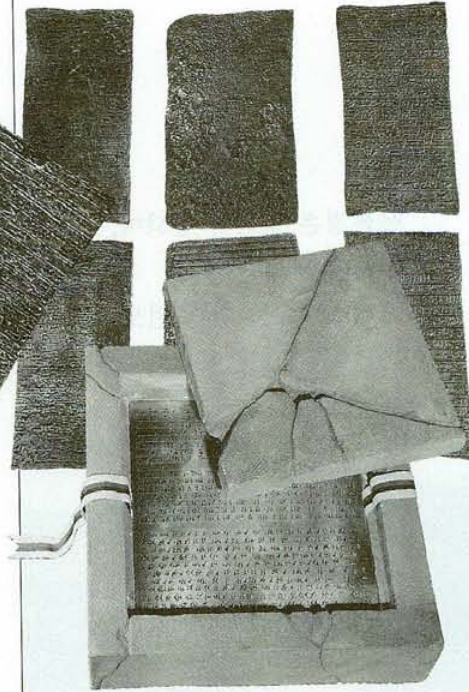
상황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몰몬경을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순수한 기록으로 보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구원의 교훈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폴 알 치스맨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이 금속판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금, 은, 동 및 납판에 기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몰몬경은 또한 바퀴의 사용을 암시합니다. 현재까지 미대륙에서 백여점 이상의 바퀴를 사용한 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언자는 몰몬경이 돌상자에 묻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책이 출판된 이후로 여러 가지 고대 보물이 담긴 50개 이상의 돌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회의론자와 학자들에게 책을 구해, 실제로 읽어보고 그 책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자극을 줄 것입니다.

#### 윌리엄 햄블린

몰몬경은 니파이인들의 사회에 필요했던 요새와 전쟁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은 중앙 아메리카에는 몰몬경 시대의 요새가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사는 이 초기의 견해가 그르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또한 초기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활과 화살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화살촉, 화살대, 활을 상징하는 그림 등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몰몬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군사 업무에 대한 것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단지 성경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용했었다면 병거, 기병, 생포 도구, “어린갑” 등이 몰몬경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전쟁, 무기, 진술 등에 관한 많은 설명이 담겨 있지만 성경에 언급된 이러한 군사 용어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 수단으로써의 수레는 나와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콜럼버스 이전의 중앙 아메리카 군사 체제에 상응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리

##### 로버트 제이 매튜스

나에게 있어 몰몬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요가 아니라 개인적인

고대 세계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금, 은, 동 및 납으로 된 판에 기록했다.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예언자들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 강력하게 되풀이되는 강조점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참되며 문자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몰몬경이 지성인들의 정신적인 활동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간증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 몬테 에스 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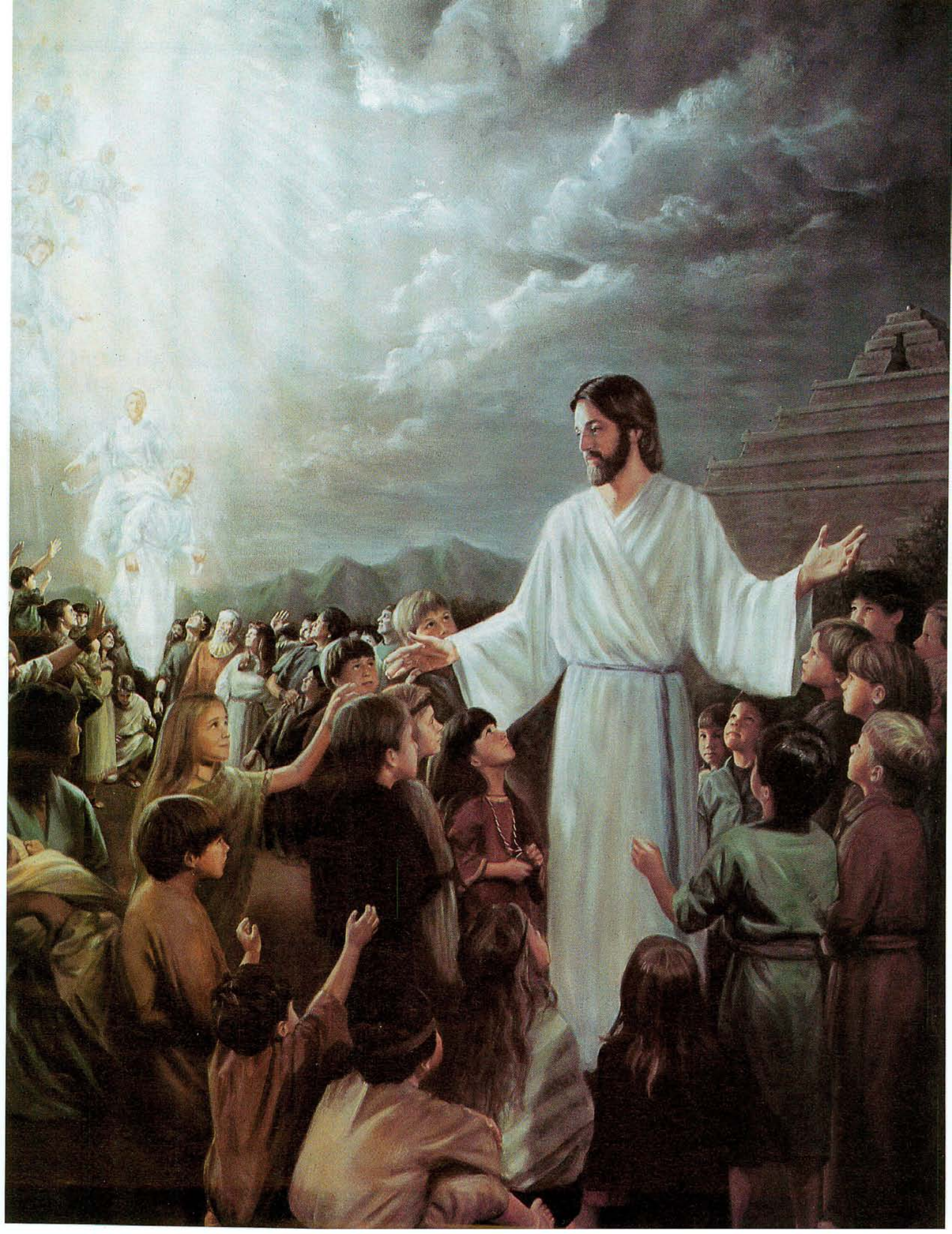
나는 니파이가 야곱에게 작은 판에는 오직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의 말씀”(야고보서 1:4)만을 포함시키라는 지시의 관점에서 몰몬경을 분석했습니다. 본문의 대부분이 그러한 세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책에 있는 세속적인 역사와 영적인 것 사이의 균형은 압도적으로 영적인 면에 있습니다.

몰몬경은 교회 교리의 기본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사에야에 의해 예언되었으며(이사야 29:24) 그 책의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회원이 몰몬경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징계받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서는 교회 회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로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성 84:54~57)

#### 브루스 에이 반 오덴

나는 몰몬경에서 종교적인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에 있는 예언자·지도자들의 인격,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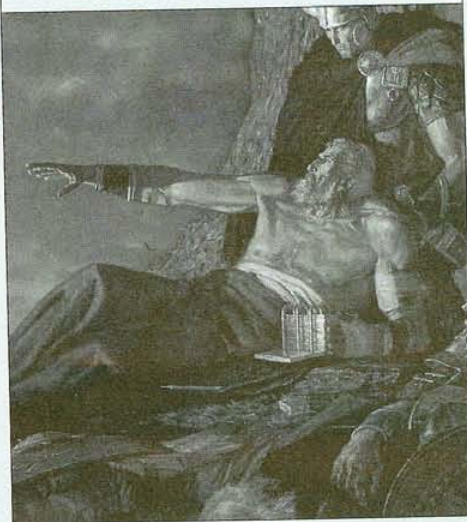


개성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백 여개 이상의 유용한 원리를 알아냈으며 많은 교사의 특성과 교육적인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영혼의 복리를 염려하며(니파이이서 6:3; 엘마서 13:27~30) 교사는 가르치고 교리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성구를 많이 사용해야 하며(니파이이서 6:3~4; 엘마서 12:9; 니파이삼서 20:11~12) 교사는 기도와 감사에 그들의 모든 영혼을 쏟아야 한다.(엘마서 19:14) 야곱과 시렘,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예수께서 군중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위대한 교사들이 특정한 문제에 접근했던 방법은 우리의 교육 환경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잔 이스톤 블랙

몰몬경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인 멸망에 이르는 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지의 상태로 이끄는 길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니파이인의 많은 기록이 전쟁, 기근, 멸망 등으로 가득 차 있으나 충실한 추종자들은 좁은 길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비슷한 그들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면에서의 조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헌신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몰몬경은 영적인 멸망이나 물질적인 멸망에 이르는 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지의 상태로 이끄는 길도 분명하게 알려 준다.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 시 윌프레드 그리그스

모든 사람들은 파괴적인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나 투쟁 능력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몰몬경은 하늘의 힘이 보존하고 구원하고 승화시키는 데 있어 다른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몰몬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를 얻는 방법을 아는 데 절대 필요합니다.

#### 기고인들

폴 알 치스맨은 유타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 명예 교수임.

수잔 이스톤 블랙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사 및 교리 부교수임.

시 윌프레드 그리그스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종교 연구 센터의 고대 연구 분야의 책임자임.

윌리엄 햄블린은 미시시피 해티스버그에 있는 사우던 미시시피 대학교의 역사학과 조교수임.

로버트 제이 매튜스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종교 교육학장임.

로버트 엘 밀레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 부교수임.

몬테 에스 니만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종교 교육 부학장이며 종교 연구 센터의 몰몬경 분야의 책임자임.

스티븐 이 로빈슨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 교수임.

존 소렌슨은 전 인류학 분과의 위원장이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의 인류학 명예 교수이며 고대 탐구 및 몰몬 연구를 위한 기구(FARMS) 책임자.

고든 시 토마슨은 후진국 개발에 관련된 응용 인류학자임. 유타 프로보에 거주.

브르스 에이 반 오덴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사 조교수임.\*



즐거운 청소년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될  
성신과 함께 하는 경험이  
되었다.

## 안데스에 갇히어

로돌포 델 시 아세이베이도 에이

**들** 뜬 마음으로 버스에 가득 탄  
세미나리 학생들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안데스  
산맥으로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 자리에서 나는 칠레  
전역에서 모인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서 복음의 정신을 나누며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기분 좋게  
듣고 있었다. 어린 그들의 얼굴에  
비친 기쁨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고  
노는 어린이를 연상케 했다.

1973년에 나는 칠레의 세미나리  
새벽반 교사로 봉사했다. 나의  
아내와 몇몇 남녀 성인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는 안데스의 마이포 계곡에  
있는 아름다운 모랄레스 뱃츠로 가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보고 만져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다. 청소년들은 즉시  
눈 위를 뛰어 다니며 눈을 밟쳐  
던지기도 했고 언덕에서 굴러

내리기도 했다. 바닥이 매끄러운  
우리의 신발이 눈 위를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즐겁게  
놀았다. 그때 안데안 클럽의 회원인  
산악 안내인이 우리를 보았다. 그는  
눈으로 뒤덮인 깊은 구덩이와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일렬 종대로 산  
정상에 있는 대피소까지 안내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야영을 하게  
되었다.

고조된 분위기는 그의 경고로 약간  
수그러졌지만 집으로 출발할 때 또  
다른 안내자, 즉 성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 바로 그날 오후였다.

버스에 올랐을 때는 날도 저물었고  
몹시 지쳐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바퀴가 눈 속에 빠져  
헛돌았다. 우리는 버스의 무게를  
덜기 위해 모두 차에서 내렸다. 그때  
누군가가 운전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그 중 남자  
20명은 곧 버스가 뒤쫓아 오리라  
생각하고 걷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계속 걷는 동안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그 사이 밤이  
되었으며 눈 덮인 땅은 외투 같았다.  
우리는 한 시간 가량 걸었으며 겁이  
나기 시작하여 행군을 멈추었다.  
우리 중 소년단원이었던 한 형제가  
모두 원을 만들게 하고는 몸을  
녹이고 흥겹게 하기 위해 움직이며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러나 버스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찾아 보았으나  
그것은 헛 일이었다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몹시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버스가 왔으나 버스에는  
운전사 밖에 없었다. 그는 버스의  
부속품이 고장나 수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여자들은  
대피소에 남겨 두고 왔으니 우리에게  
올라가서 다음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버스는 아래로 내려갔으며 우리는 대피소까지 한참 걸어가야 했다. 눈은 이내 버스 바퀴 자국을 덮었으며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없었다. 걷는 동안 우리의 옷은 젖어 추웠으며 발은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눈속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걸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마음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우측으로 가야 할지 곧장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지점에 도착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아무도 확실히 알지를 못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리하이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기로 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리아호나도 없었으며 길을 안내할 지도자도 없었으나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오른쪽 길을 택해 눈덮힌 산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기다 불빛이 보여!” 우리의 희망과 열의는 새롭게 되었으며 질 훈련된 합창단처럼 “전승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무리 중에서 말했다. “조용히! 잘 들어 봐!” 조용한 가운데 멀리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진리는 이기리”

우리도 계속 노래를 부르려 했으나 감정이 북받쳐 부르지 못했다. 빵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추려 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나 빨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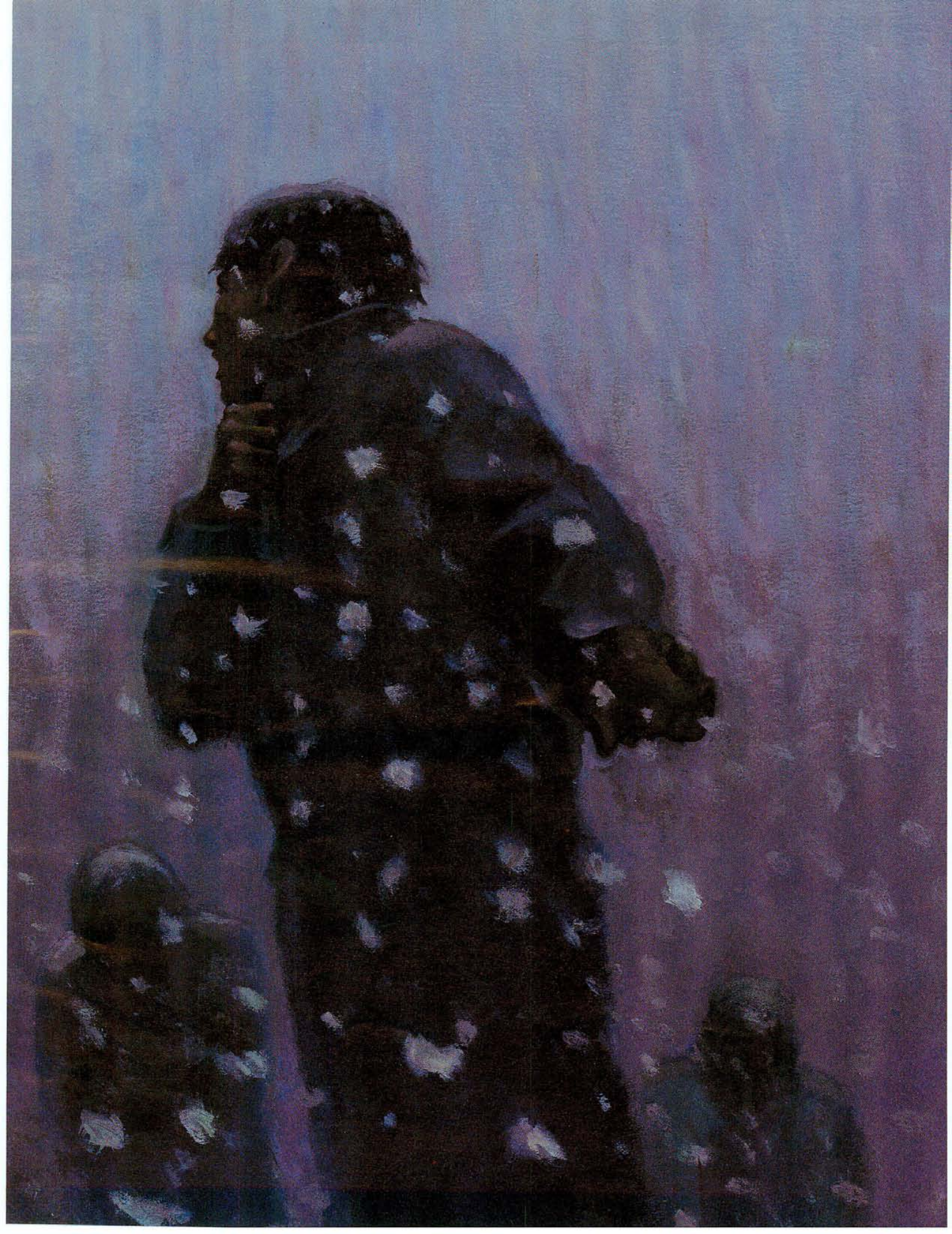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일어나 새로 내린 눈으로 덮힌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았다. 대피소 안은 따뜻했으며 우리는 주일학교와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 폭풍에 갇힌 노부부와 다른 청년 그리고 대피소 관리인이 우리의 함께 했다. 감동적인 메시지와 기도와 찬양의 노래가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비회원들이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과 그토록 훌륭한 청소년을 만나게 된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날 오후에 우리를 산티아고로 실어갈 버스가 왔다. 것처럼 유쾌했던 모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될 경험이 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산의 인도를 통해 그 어두운 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리차드 엠 롬니에게 전해 준 이야기

**유** 럽에서의 전쟁은 1945년 끝났다. 그러나 수개월 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년간 계속된 파괴의 두려운 악몽은 아직도 유럽 도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다뉴브 강을 끼고 자리잡은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비엔나는 크게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성 스테반 성당, 오페라 공연장 및 큰 극장들과 같은 유명한 공공 건물이 모조리 파괴되었다. 아직도 폐허의 발굴과 재건이 시작되던 때였다.

또한 궁핍한 시기였다. 음식, 의복, 깨끗한 음료수가 모자랐다. 거의 270,000의 비엔나 시민이 집을 잃었다. 파괴된 건물들은 거리를 구멍으로 가득 채운듯이 보였다. 비엔나는 나눠져 연합군이 각기 자기 지역을 순찰했다. 사람들은 밤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그곳에는 아직도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러 명의 말일성도가 미군 담당 지역에 있었다. 모임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했으며 우리는 기쁘게 이에 응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게 됨을 기뻐했다. 우리 미군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과 기타 선물을 보내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다.

모든 오스트리아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 한 밤중의 부드러운 휘파람

린 피네가

군인들을 초청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깃슨 대위와 나는 지부장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지명되었다.

깃슨 대위는 전에 그 집에 간 일이 있었지만 나는 없었다. 차를 몰고 다뉴브 강 다리를 건너 가면서 나는 많은 항구가 있었던 도시 동편이 특히 크게 피해를 입었음을 보았다. 텅 빈 폐허에는 도로명이나 집의 번지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가로등도 없었다.

그러나 수분 후에 깃슨 대위가 차를 멈추라고 해서 나는 차를 멈추었다.

그는 차밖으로 몸을 내밀어 양손으로 컵모양을 만들어 입에 대고는 분명한 소리로 초등학교 노래인 “나더러 세상 빛 되라”를 휘파람으로 불었다.

우리는 기다렸다. 어둡고 텅 빈 거리는 무서웠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며 다시 돌아갈 수나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길 건너 3층에서 창문 덮개가 열렸다. 부드럽고 맑은 감미로운 휘파람의 선율을 다시 들었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정해 놓은 응답이었다. 우리는 휘파람으로 교회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으며 회원들은 모든 것이 괜찮으면 휘파람을 불어 응답하게 되어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으며 곧 지부장의 딸이 믿을 수 있는 이웃과 함께 길을 건너 뛰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으며 우리는 거리에서 차를 몰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시 문을 닫고는 자물쇠로 채웠다.

지부장의 딸은 몹시 들떠 있었다. 그녀는 세 계단을 춤을 추듯이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지부장 부부와 또 다른 딸을 만났다. 초라한 가구들이 놓인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가족은 몹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성탄절 전야였고 식탁에도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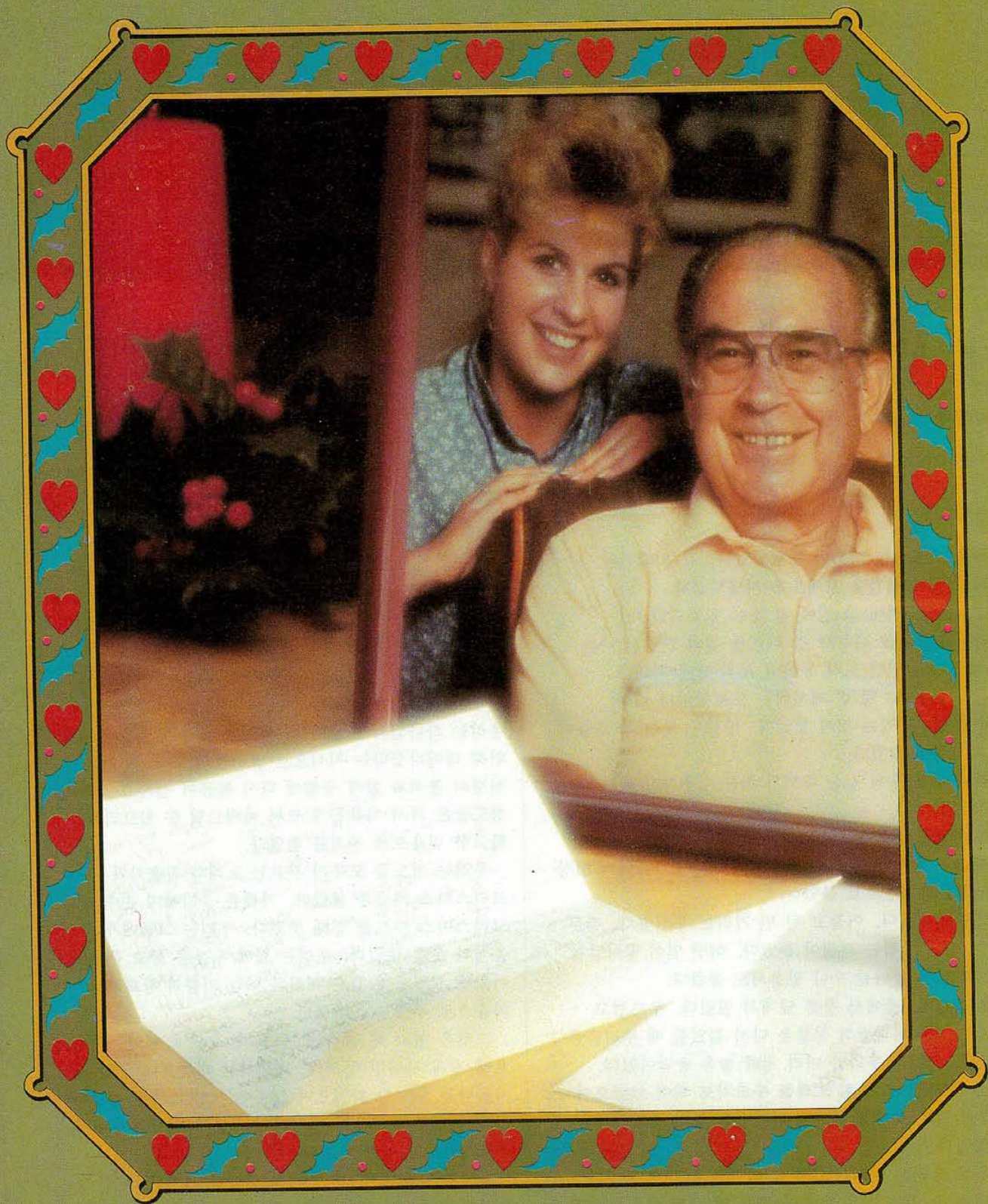
우리는 음식보다도 사랑과 우정으로 잔치를 벌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소망과 빛을 가져오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지식으로 잔치를 벌였다.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함께 유럽에 다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성도들은 다시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잔치를 벌였다.

우리는 성도들 모두가 부르는 노래와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가족은 우리에게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해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음식과 옷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깃슨 대위와 나는 기쁨과 강화된 마음으로 부대로 돌아왔다.

그것은 여러 해 전 일로 종전 후 유럽에 있었던 공포는 오래 전에 사라진 듯하다. 비엔나는 다뉴브에 있는 다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며 그곳에는 성 스테반 성당과 기타 유명한 건물들이 재건되어 폭탄과 전쟁의 불길은 극복하겠다는 인간 의지의 기념비도 서 있다.

지금도 언제나 “나더러 세상 빛되라”를 들을 때면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우면, 조용한 휘파람 소리에 의해 어느 곳이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신앙과 기쁨과 우정과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켜 준 어두운 거리에서의 추억이 마음을 가득 차게 한다. \*







# 사랑의 상징

질 스테이커

나는 할아버지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물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암으로 운명하시기 전이었으며 아마도 이번이 나와 함께 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여러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는 독특한 어떤 조그만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기엔 적절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든 나그네든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기꺼이 도와 주고자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길가에서 차를 세워 도움을 청하는 어떤 여행자에게 비싼 공구 세트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 공구를 다시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이 이러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대부분의 형제 자매가 일찍 죽고 심지어는 손녀가 죽는 일을 위시하여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충실하셨습니다. 그는 약혼녀를 자동차 사고로 잃었으며 철도 사고로 자신의 생명까지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시련을 통해 할아버지는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되었으며 결코 주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사하고자 하는 큰 의욕을 갖고 계셨으며 어떤 직책이든 그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서기로 오랫동안 봉사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에 손이 떨려 글쓰는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 스테이크 부장이 그에게 해임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장님, 글씨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낚시질이지요. 낚시대를 들면 손이 너무 떨려서 고기가 물린 건지 내 손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스테이크 서기 일을 거의 돌아가실 무렵까지 계속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으로 인한 고통이 몹시 심했을 때

할아버지는 특별 가족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사 당신과 가족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견해로는 무엇을 사든지 그토록 위대한 분에게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위해 아직도 선물을 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건을 사러 갔지만 선물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갖고 계시다면 무엇을 하실까?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내 마음속에 조용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에게 돈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가 돈을 쓰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이를 꺼내어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적었으며 크리스마스에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린 뒤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봉투에 넣어 그에게 키스해 드리면서 재빨리 드렸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그에게 기쁜 성탄절을 기원해 드리고 나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가지러 가면서 할아버지 방을 지났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불러 들이시더니 나를 끌어당기시며 할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커다란 포옹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다.”하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을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모범을 통해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분처럼 되게 하려는 소망을 일깨워 주셨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되고자 노력했던 영화로운 인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



---

예) 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 : 25~32

---